

김수영 산문에서 1인칭 대명사와 필자 관련 지칭어의 표현 양상

김흥수(국민대)

<목 차>

- | | |
|------------------|----------|
| 1. 서론 | 4. '우리' |
| 2. 자료 분석의 관점과 방법 | 5. '필자'류 |
| 3. '나' | 6. 결론 |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시인 김수영의 산문을 대상으로 필자 지칭어의 표현 양상을 살핌으로써 그 일반적 쓰임과 특징적 쓰임, 담화·문체 기능을 밝히고 그의 인식과 태도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알아 보고자 했다. 자료 분석 방법 면에서는 필자 지칭어의 실현 여부와 지칭어 유형 선택, 지칭어 실현이 선택적인 경우, 지칭어의 쓰임이 유효적이고 특징적인 경우 등을 중시했다.

'나'의 쓰임을 보면, 글의 종류, 성격, 맥락에 따라 '나'의 노출, 실현이 선호되거나 절제되는 것은 일반적 쓰임에 가깝다. 특징적 쓰임 중 '나'의 쓰임이 두드러진 경우로 소극적 강조, 자의식 투사에 따른 맥락상 초점화, '나'가 억제되는 경우로 첫머리와 전환부, 그 후속 맥락에서 서술자의 내적 흐름 강화가 나타난다.

'우리'의 쓰임은 그가 부류의 일원으로서 지니는 인간·사회적 속성의 복합성 및 다층성과, '나'와 '우리'의 관계를 반영한다. 개인성과 공동성의 관계는

동질적 확대, 통합과 어긋남의 양면성을 보인다. 드물게 필자 자신의 일에 ‘우리’를 쓰는 예도 나타난다.

‘필자’는 논설류를 중심으로 자신을 격식있게 객관화하는 경우에 쓰인다. 객관성과 공식성 유지, 감정의 절제와 완화에 쓰여 주관성을 표출하는 ‘나’와 대비된다.

주제어 : ‘나’, ‘우리’, ‘필자’, 일반적 쓰임, 특징적 쓰임, 담화-문체 기능

1. 서론

글에서 필자 지칭어¹⁾의 표현 양상은 필자가 글 내용 속의 인물로서, 또 글의 서술자로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 준다. 아울러 이때 필자 지칭어가 노출되는지의 여부, 또 ‘나’ 또는 ‘필자’류로 실현되는지 들은 필자가 자신의 존재, 글, 생각, 그리고 독자 등에 어떤 인식과 태도를 지니는지를 반영한다. 그런가 하면 필자를 포함하는 부류를 지칭하는 ‘우리’류의 표현 양상은 필자가 자신과 관련되는 여러 부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인식과 태도를 지니는지를 드러낸다. 그리고 이러한 필자 및 필자 관련 부류 지칭어의 표현 양상과 이들이 필자의 역할, 인식, 태도 등을 반영하는 양상은 글의 종류, 필자의 성향, 쓰임의 맥락²⁾ 등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 듯하다. 이에 따라 어떤 경향성을 찾을 수 있을텐데, 이를 문체의 관점에서 보자면 랑그 문체³⁾에 가까울 것이다. 그런데 특정 필자나 글에 따라서는 그러한 관련성이 일반적 경향에 따르지않고 특화, 집중, 이탈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문체 면에서 파롤 문체라 할 만하다. 따라서 특정 필자의 글을 대상으로 해당 쓰임을 살펴 해석할 경우 일반적 쓰임과 특징적 쓰임이 어떻게 구별되고 공존하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시인 김수영의 산문을 대상으로 필자 및 필자 관련 부류 지칭어의 쓰임과 기능을 살핀다. 그래서 그 표현 양상과 필자의 인식과 태도를 반영하는 양상이 글의 종류, 필자의 성향, 쓰임의 맥락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1) 여기에서 ‘필자 지칭어’는 넓은 의미로 써서 ‘나’, ‘본인’ 외에 ‘필자 관련 (부류) 지칭어’라 할 필자 포함 ‘우리’, 일반 명사 ‘필자’류, ‘시인’류(5장 예문(38)참조) 등을 포괄할 수 있다.

2) 여기에서 ‘맥락’은 문맥, 서술 상황, 사회·시대적 상황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쓴다.

3) 랑그 문체와 파롤 문체에 대해서는 졸고(2004) 참조.

일반적 쓰임과 특징적 쓰임 면에서 찾고 논의한다. 다만 편지와 일기는 서술 상황이 특히 私的이어서 필자 지칭어의 쓰임도 매우 개인화되어 있을 것이므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필자는 이미 글에서의 담론 소통 면을 주목해 문학 작품을 대상으로 화용, 담화·텍스트 양상을 다룬 바 있다(졸고 1996, 2005, 2008). 그들에는 대명사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인칭대명사 논의는 이 글의 논점에 관련된다. 한편 필자는 일반 산문의 문체가 어학적 문체론의 기본 대상임에 유의해 김수영 산문의 문체 양상을 살펴 왔다(졸고 2006, 2007). 그의 산문 문체의 일반 특징과 통사, 의미 양상을 다루었고 그 연장선에서 화용, 담화 면에도 관심을 두게 되었는데, 이 글의 논제는 그 주논점 중 하나에 해당한다. 특히 화용·담화 면은 그의 산문에서 쓰임이 두드러지고 그의 산문의 주요 문체 특징들과 긴밀히 맞물린다.⁴⁾ 또한 산문 문체 일반론에서 화용·담화적 접근은 아직 제한된 편이다.⁵⁾ 따라서 이 글의 논의는 김수영 산문 문체의 특징적인 면에 작용하는 어학적 논리를 찾고 일반 산문 문체의 화용·담화 면을 세부적으로 살피는 데에 일조하리라 기대해 본다.

논의 순서는 먼저 2장에서 해당 현상에 대한 관찰 및 해석의 관점과 방법을 점검한 다음 3, 4, 5장에서 각각 ‘나’, ‘우리’, ‘필자’류를 다루고 6장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료 분석의 관점과 방법

특정 작자나 글에서 어떤 화용·담화·문체 현상의 쓰임이 두드러지고 특징적인 경우에도 그러한 파롤적 쓰임은 좀 더 평범하고 일반적인, 문법과 랑그적 쓰임을 기반으로 하고 또 그와 함께 얽혀 나타난다. 이때 일반적 쓰임과 특징적 쓰임의 관계와 양상은 글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式辭, 문서, 논문과 같이 글의 형식과 표현이 정형화, 관습화되어 있을수록 특징적 쓰임은 제한되고 수필, 문학 작품과 같이 형식과 표현이 자유로울수록 특징적 쓰임은 활

4) 그의 문체 특징 중 강조, 설의와 문답, 회행 등 독자지향 화법은 화용 면과, 직선적 사고, 속도감과 역동성, 대립·부정의 논리와 수사 전개 등은 담화·텍스트 면과 관련된다. 이 때 화용은 소통 상황 면, 담화는 문장의 연속체 면에 주안점을 둔 것이다.

5) 물론 주제 전개 방식, 소설의 時相 관련 종결 서술 방식, 텍스트의 세부 구조, 논증·광고·유머 텍스트 등의 문제들이 다루어졌으나 문체 논의는 제한된 감이 있다.

발해 지고 다양해 지는 경향이 있다. 김수영 산문의 경우에도 화용·담화·문체 면의 쓰임이 두드러지고 특징적이기는 하나 그러한 특징적 쓰임은 일반적 문법과 쓰임의 연장선에서 공존하면서 특화되며, 서로의 관련 양상은 글의 세부 유형 및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을 듯 보인다.

김수영 산문의 화용 면 중에서 1인칭 대명사와 필자 관련 지칭어의 쓰임은 그의 문체 특징 중 주로 주관적이고 직접적인 어조, 고백투의 필자 태도 표현, 사회·문화적 맥락 관련성 등과 관련된다. 그래서 그의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태도가 '나'로써 적극적으로 드러나고, '나', '우리', '필자'류의 선택과 해석에 여러 맥락 요인이 관련되리라 여겨진다. 그리고 그는 개인성과 자의식이 강하면 서도 공동 현실에 대한 의식과 지향성도 강한데 이 점은 '나'와 '우리'의 관련 속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특징적 쓰임들은 글의 종류, 성격, 맥락에 따라 부각되기도 하고 일반적 쓰임 가운데 희석되기도 하므로 두 쓰임의 구별과 관련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김수영 산문에서 1인칭 대명사와 필자 관련 지칭어의 일반적 쓰임이 어떤지 개괄 점검하면서 특히 그의 문체 특징을 드러내는 특징적 쓰임은 어떤지를 찾아 알아 본다. 그래서 실제 분석에 앞서 해당 표현의 분포와 기능을 관찰, 해석하면서 생각할 유의점과 적용할 방법을 몇 가지 짚어 나간다.

첫째, 글의 종류나 맥락 면에서 필자 지칭어의 존재 여부가 문제되는 층위와 필자 지칭어의 존재를 전제로 그 실현 여부와 지칭어 유형 선택이 문제되는 층위를 구별한다. 그래서 후자에 주안점을 두되 전자도 고려한다. 이를테면 여기에서 주 관심 대상은 (1ㄱ)의 '나(는)' 실현형, (ㄴ)의 '나(는)' 생략형, (ㄷ)의 '필자' 지칭어형, (ㄹ)의 '우리'형 같은 예들이다. 그런데 (2)와 같이 필자 지칭어를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화용·담화·문체적 관점에서 (1)같이 필자 지칭어가 명시적인 경우들과 대비할 때에는 참조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 (1) ㄱ. 나는 연애시다운 연애시를 한 편도 써본 일이 없다. (『나의戀愛詩』, 88)⁶⁾
ㄴ. 요즈음은 문학책보다도 경제방면의 책을 훨씬 더 많이 읽게 된다. (『밀물』, 27)

6) 예문 인용의 출처(글 제목과 면수)는 민음사 판 김수명 편(1981), 『김수영전집 2 산문』에 따른다.

- ㉔. 필자는 요즘 신문의 월평난을 3, 4회가량 담당해 쓰면서 새삼스럽게 소위 <詩月評>이란 것의 비신중성을 느낀다. (『知性的 가능성』, 371)
- ㉕. 우리들한테는 사실상 옷이 없다. 白农民族이라고 하지만 요즘은 흰옷을 입는 것은 시골의 농사꾼뿐이다. (『흰옷』, 109)
- (2) ㉖. 장마가 지면 강물 내려가는 모양이 장관이다. (『장마 풍경』, 47)
 - ㉗. 제 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은 없는가? (『제 精神을 갖고 사는 사람은 없는가』, 139)
 - ㉘. 이달에는 기성층들이 자기나름의 세계에서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 상당히 견고한 작품들을 보여주었다. (『평균수준의 수확』, 384)

위의 예들은 모두 글의 첫머리이다. (1)에서는, (㉖), (㉗)이 同類의 私的 수필이면서 (㉖)에서는 필자가 명시되고 (㉗)에서는 명시되지 않는 것, 詩月評인 (㉔)에서 ‘필자’가 선택되는 것, (㉕)에서 필자를 포함하는 부류로서 ‘우리들이 지나는 외연·내포 의미 들이 문제가 된다.’⁷⁾ (2)에서는, (㉖)이 (1㉖, ㉗)과 같은 사적 수필이면서 필자 성분이 상정되기 어려운 것, 時論인 (㉘)에서 필자가 명시되지 않으면서도 질문의 주체로서 상정되는 것, (1㉔)과 같은 評文인 (㉔)에서 필자가 상정되지 않는 것 들이 참조가 된다.⁸⁾

둘째, 필자 지칭어의 실현 여부가 거의 필수적이어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경우와 그 실현이 융통성이 있고 선택적인 경우를 구별하여, 후자에 주안점을 두고 전자도 고려한다. 전자는 주로 통사 규칙과 그 연장선의 화용·담화 문법에 지배되어 그 표현·문체 기능이 약한 경향이 있다. 반면에 후자는 주로 필자나 맥락의 요인에 따르므로 표현·문체 기능이 두드러진 경향이 있는 것이다. 또한 지칭어의 출현 환경 면에서 지칭어가 단일문, 모문, 접속문, 주절

7) (1㉖)에서 ‘나’의 쓰임은 무표적이고 (㉗)의 ‘나’ 생략은 유표적이면서 바로 서술 분위기와 본 내용을 접하는 듯한 감을 주는 점에 대해서는 예 (6), (12) 설명 참조. (㉔)의 ‘필자’는 예 (33) 설명, (㉕)의 ‘우리들이 세대’를 가리키는 것은 예 (16) 설명 참조.

8) (2㉖)은 필자 자신의 행동이나 일 아닌, 知覺된 외부 사태에 대한 서술이므로 필자가 노출되기 어려우나 “나는…모양을 본다.” 같이 자신의 경험 관련 행동으로 표현하면 ‘나’가 실현될 수 있다. (㉗)은 청탁한 쪽에서 준 주제이나 필자 자신의 문제 제기로 재해석할 때, 글 첫머리로는 질문 형식인 점에서 유표적이다. 글의 주제를 강조하면서 독자를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다. (㉔)은 필자의 주관적 판단 내용이지만 단정적으로 서술해 필자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주장을 객관화하는 면이 있다. “나는…라고 생각한다.” 같이 자신의 판단 행위를 노출하면 그러한 단언력과 객관성은 약화된다.

들의 주어나 주제어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화용·담화상 기능이 두드러지므로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이에 비해 지칭어가 내포문, 종속절의 주어이거나, 주어 아닌 성분인 경우는 그 기능이 약하므로 부차적으로 다룬다.

예컨대 여기서 주 관심 대상은 (3)에서 '나는'의 실현형과 생략형이 다 쓰일 수 있으면서 어떤 담화·표현 동기에 따라 실현되기도 하고 생략되기도 하는 현상 같은 것이다. 이에 대해 (4)에서는 필자 지칭 '나' 성분이 거의 필수적이면서 문법적 동거나 그와 관련된 의미 표시·화용상 동기에 따르며 담화·표현 동기는 약하다. (4ㄱ)은 필수적 주어, (ㄴ)은 관형어, (ㄷ)은 부사어, (ㄹ)은 내포문, (ㅁ)은 종속절 예이다.

(3) ①⁹⁾ 나는 어렸을 때부터 말 외양간 냄새가 여간 좋지 않았다. 토끼장 냄새는 그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②그 냄새가 평화스러운 감을 주는 것이 싫지 않다. 혹시 시골의 노모의 양계장에 내려가면 토끼축사에서 병든 닭들이 한데 놓고 있는 것을 보는데, ③나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무슨 우애의 철학이나 세계평화의 산 표본을 보는 것 같다. (『토끼』, 50)

(4) ㄱ. 나는 닭띠이고 나의 아내가 바로 토끼띠이니까 말이다. (『토끼』, 51)
 ㄴ. 어떤 사람들은 너의「木馬와 淑女」를 너의 가장 근사한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내 눈에는 <木馬>도 <淑女>도 낯은 말이다. (『朴寅煥』, 64)
 ㄷ. 종로에서 茉莉書숯을 하고 있을 때 너는 나한테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었다. (64)

ㄹ. 내가 시를 보는 기준은 이 <자유의 회복>의 신앙이다. (『나의 信仰은 <自由의 회복>』, 125)

ㅁ. 나는 무슨 일이든 얼마가 남느냐보다도 얼마나 힘이 드느냐를 먼저 생각하는 버릇이 있는데, 아내는 아직도 나의 이 <力耕主義>에는 그리 신뢰를 두지 않고 있는 모양이다. (『토끼』, 51)

(3)에서 ①의 '나는'은 단락의 첫머리로서 일반적인 담화 흐름에 따라 실현형이 자연스럽다. ②에서 '나는'의 생략 또한 선행 문맥과 관련된 담화적 동기에 따른 것이다. ③에서 '나는'은 접속문 주절 주어로서 접속의 겹침 및 의미

9) 이런 경우의 번호 ①, ②…는 필자 지칭어 성분 '나는'이나 그 생략형 또는 이들을 포함하는 구문을 표시한다.

맥락과 관련된 담화·표현 동기에 따라 실현된 것이다. (4ㄱ)의 ‘나는’은 ‘이다’ 구문의 주어로서 통사적으로 생략되기 어렵다. (ㄴ)의 속격 성분 ‘내’는 담화·화용상 쉽게 알 수 있어서 생략될 수 있음직하나 ‘눈’이 ‘견해’의 의미인 것, 그 판단 주체가 필자임을 명시할 通報상 필요들과 관련해 생략되기 어렵다. (ㄷ)의 여격 성분 ‘나한테’는 ‘말을 듣는 상대’인 필수적 부사어로서 명시될 필요가 있고 생략될 경우는 그 정보가 통보상 잉여적인 데 따른 것이다. (ㄹ)의 내포문 주어 ‘내가’는 통사·통보상 명시될 필요가 있다. (ㅁ)에서 접속문의 선행 종속절 주어 ‘나는’은 ‘주제(‘나는’)-주어(‘버릇이’)의 ‘있다’ 구문, 후행절 주어(‘아내’는)’와의 불일치 등과 관련해 통사·문맥상 생략되기 어렵다.

셋째, 첫째, 둘째 논의에서 잠깐 보았듯이 (2)같이 필자 지칭어가 상정되기 어려운 경우나 (1), (3)에서 지칭어가 생략되는 경우도 지칭어 실현형과 더불어 담화·표현·문체적 관련형으로 고려한다. 아울러 (4)같이 지칭어 실현이 필수적이고 담화·표현 동기가 약한 경우라도 그 실현이 선택적이고 담화·표현 동기가 강한 경우와 더불어 표현·문체적 관련형으로 다룬다. 이러한 점을 다음 (5)에서 종합적으로 본다.

- (5) ①내가 생각하는 시의 뉴 프런티어, 그것은 ①내가 생각하는 무한한 꿈이다. 계급문학을 주장하고 노동조합이나 협동조합의 문화센터운동을 생경하게 부르짖을만큼 ②필자는 유치하지 않다. 그러나...¹⁰⁾ 위선 작품이 되어야 한다고 ③나는 천만번이라도 역설하고 싶다. 뉴 프런티어의 탐구의 전체와 동시에 본질이 될 수 있는 것이 이것이라고 ④확신한다. (『시의 <뉴 프런티어>』, 176)

(5)에서 ①의 ‘내(가)’는 思考·판단의 주체이자 그를 근거로 하는 서술·斷言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필자의 서술 태도와 표현 동기에 따라서는 사고·서술 주체와 사고·단언 행위를 명시하는 ‘내가 생각하는’이 노출되지 않는 문장 “시의 뉴 프런티어, 그것은 무한한 꿈이다.”가 쓰일 수 있다. 이때 이 필자 비노출 표현은 ①의 ‘내(가)’ 노출·실현 표현과 더불어 담화·표현·문체적 관련형으로 고려될 수 있다.¹¹⁾ 한편 ①의 ‘내가’는 내포문 주어로서 그

10) 이 글에서 …(반줄임표)는 한 문장 내부 또는 담화의 내용 생략을 표시한다.

11) 이때 필자 비노출형은 노출형에 비해 단언력과 객관성이 강화된다. 즉 일반화, 절대화되어 있는 명제·진술 내용 같은 감을 준다.

실현이 필수적이고 담화·표현 동기도 약하다. 그렇지만 필자의 자신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따라서는 ‘나’ 대신 ‘필자’가 선택될 수 있으므로, 이때 ‘나’와 ‘필자’는 표현·문체적 관련형이라 하겠다. ②의 ‘필자는’은 모문의 주제어이자 주어인데 담화의 흐름상 선행 문장에 동일 주제어가 상정되기 어렵고 통보 면에서 ②의 주어를 명시할 필요도 있어서, ②의 ‘필자는’은 생략되기 어렵다. 물론 이 때의 ‘필자’ 또한 ‘나’와 표현·문체적 관련형이 된다.

④에서 ‘나는’의 생략은 담화 흐름상 선행 문장의 ③의 동일 주제어가 반복 재현되는 것을 피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 때에도 ③의 ‘나(는)’은 담화상으로는 생략형과, 필자의 인식·태도 면에서는 ‘필자(는)’과 관련형이 된다. 또 ④의 생략형은 담화상으로는 ‘나(는)’ 실현형과, 필자의 인식·태도 면에서는 ‘필자(는)’과 관련형이 된다.¹²⁾

넷째, 앞에서 주 관심 대상으로 필자 지칭어 실현형과 생략형, 고려 대상으로 지칭어 비노출형과 필수적 쓰임 들을 보았는데, 그 중에서도 그 쓰임의 양상이 일반적이고 無標인 경우보다 좀더 특징적이고 유효적인 경우에 유의한다.¹³⁾ 즉 해당 현상의 랑그적 쓰임을 개괄 점검하면서도 김수영 산문의 표현·문체 특징을 염두에 두고 파롤적 쓰임 면을 집중 조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글 첫머리에서 필자 지칭어의 실현형 (6ㄱ)은 무표적, 생략형 (ㄴ)은 유효적, ‘우리’의 지칭 부류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7ㄱ)은 무표적, 필자와 관련해 주관적이고 불투명한 (ㄴ)은 유효적, 필자 지칭어가 거의 ‘필자’로 나타나는 글에서 (8ㄱ)의 ‘필자’의 쓰임은 무표적, (ㄴ)의 ‘나’의 쓰임은 유효적이다.

- (6) ㄱ. 나는 수첩을 갖고 다니기가 싫어서 담배갑 뚜껑에 메모를 해두는 버릇을 지키고 있는 지가 벌써 오래된다. (『生活의 克服』, 59)
- ㄴ. 육체가 곧 튼튼하고 罪리는, 이득하게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한다. (『原罪』, 94)
- (7) ㄱ. 얼마 전에 우리집에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다. … 그 전달까지 우리는

12) 이때 ③의 ‘나는’ 실현형은 인용 명제 뒤에 ‘나는’이 배치되어 선행 명제가 더 강조되고, ④의 생략형은 동일 주제어가 생략됨으로써 다시 새롭게 ‘…이라’ 인용 명제가 강조된다.

13) 여기에서 ‘무표성, 유효성’ 유무 및 정도에 대한 판단과 그 적용은 상대적이고 모호한 점도 있으나 이런 관점은 경향성과 표현 동기 포착에 유용할 것이다. 예컨대, (8)의 경우 분포 면에서는 ‘필자’가 무표적, ‘나’가 유효적이나 문체 기능 면에서는 그 반대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ㄴ)의 ‘나’가 필자의 억제된 본연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면 유효성을 띠다고도 하겠다.

매달 백원밖에는 내지 않았다. (『이일 저일』, 115-116)

ㄴ. 前衛의인 문화가 불온하다고 할 때, 우리의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재즈 음악, 비트族, 그리고 60년대의 무수한 엔티예술들이다. (『<不穩>성에 대한 비과학적인 억측』, 161)

(8) ㄱ. … 이만하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그가 『<詐欺>論』을 쓰고 필자를 공박하게 된 경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 백보를 양보해서 章湖의 시에 대한 필자의 평이 틀렸다고 치고, 章湖의 시도 산문이지 시가 아니라고 치자. (『文脈을 모르는 詩人們』, 220)

ㄴ. 그가 산문으로 의도한 산문보다도 章湖의 뜻하지않은 산문이 나의 눈에도 훨씬 어색하지 않다. (220)

(6-7)은 생활 수필의 첫머리로서 필자 자신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일반 관습에 따르고 있다. 이에 비해, 좀더 자의식이 강한 수필의 첫머리인 (ㄴ)에서는 ‘나는’의 실현이 억제되어 필자의 내면 분위기가 조성되고 곧바로 본 사색 내용에 들어가도록 이끈다. (7-7)은 생활 수필 중 수도 요금에 얽힌 일화 부분으로 ‘우리’는 ‘家口’에 해당하는 부류로서 객관적으로 특정화된다. 그러나 반론 성격의 문화 時論인 (ㄴ)에서 ‘우리’는 필자의 의도나 소통 맥락과 관련해 그 외연과 내포가 주관적이고 불분명하다. 그래서 ‘필자와 의식·견해를 같이하는 지식인 부류’ 정도로 상정될 수 있는가 하면 필자의 생각을 일반화하기 위해 ‘나’ 대신 쓴 것이라 해석될 수도 있다. (8)은 재반론 성격의 詩論으로서 (ㄱ)에서 ‘필자’는 논쟁 맥락과 관련해 필자 자신을 객관화하기 위해 쓰인 것이다. 그런데 (ㄴ)에서는 논쟁 주맥락에서 다소 비껴 있어서인지 이례적으로 ‘내가 대신 쓰였다.’

지금까지 실제 분석에서 고려할 유의점과 방법 몇 가지를 점검했다. 이제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나’, ‘우리’, ‘필자’류 순으로 살펴 논의한다.

3. ‘나’

일반적인 글에서 필자가 자신을 ‘나’¹⁴⁾로 지칭함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따

14) ‘나’는 물론 서술 상황과 독자에 대한 태도에 따라 겸양어 ‘저’로 쓰일 수 있다. 김수영의 경우에도 방송 수필 「요즈음 느끼는 일」에 ‘저’가 쓰인다. 그런데 구어체 ‘합쇼체’인 이 글에서도 방송 매체의 특성과 관련해 자신의 처지를 토로하는 앞 부분에서는 ‘저’가 쓰이다가 본 내용에서는 ‘나’가 쓰인다. ‘합쇼체’이면서 ‘나’가 쓰인 예로는 「養鶴 辨明」도 있다.

라서 ‘나’가 ‘필자’류 지칭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주관성이 강하지만 유표적 쓰임이라 하기는 어렵다. 김수영은 개인성과 자의식이 강하고 서술 태도가 자기표출적, 直情的, 상대 지향적이어서 ‘나’의 쓰임이 활발할 개연성이 높다. 필자 지칭 ‘나’의 노출을 억제하기보다 선호하는 필자 부류에 속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쓰임이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아서 일반적 관습에서 그리 벗어나지는 않는다. 신변 수필이나 개인성이 요구되는 글에서는 ‘나’의 노출이 많아 지는 반면 객관성이 중시되는 논설, 평론류에서는 그 쓰임이 절제된다. 그의 자기표출적 태도는 정서 표현이나 가치 판단 관련 어휘 및 표현, 강조와 감탄, 다양한 종결 형식 등 여러 방식¹⁵⁾으로 표현되며, ‘나’의 쓰임에서는 그리 부각되지 않는다. 그래도 일련의 글이나 맥락에서는 ‘나’의 쓰임이 두드러지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이들에게 내재하는 자기표출·자기고백적 성향의 단면이 드러났다 하겠다. 한편 개인적 수필류에서도 그 내용이 필자의 신변事나 상념에 집중될 경우에는 오히려 ‘나’의 노출이 절제될 수 있으며, 이는 그의 글에도 보인다. 그런데 그의 경우 이러한 ‘나’의 절제는 그의 존재감과 내면을 드러내는 또 다른 방식이라 여겨진다. 이제 그의 글에서 ‘나’의 노출이 두드러지는 경우와 반대로 그 노출이 억제되는 경우를 살핀다.

먼저 예 (9)는 일반적인 담화 흐름 속에서, 흔히 생략될 수 있는 ‘나’가 실현된 경우이다. 주체 ‘나’를 명시하는 소극적 강조로서 표현상 의도성이 약하고 그 쓰임이 특별히 유표적이지 않다. 이에 비해 (10), (11)은 특정 담화 속에서 ‘나’가 의미 맥락과 맞물려 집중적으로 실현된 경우이다. 시인으로서의 그의 자의식이 ‘나’에 반복적으로 투사되어 표현상 의도성이 강하고 그 쓰임이 유표적이다.

(9) ①나는 하룻밤을 잠도 자지 못하고 생각한 끝에 우선 병원의사의 말대로 해보기로 결정을 하였다. 그것은 … 하룻밤을 꼬박 새고 나서도 ②나의 머리는 조금도 아프지도 앓을뿐더러 오히려 기분이 상쾌하여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침밥을 다른날보다도 달게 먹고 나서 ③나는 아내에게 지아민 주사약을 사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하였다. (「眩氣症」, 107)

(10) 「二五時」를 보고 나서, … 보초가 쏘는 총알에 쓰러지는 소설가를 생각하

15) 이틀테면 4·19 1주년에 처해 쓴 「아직도 안심하긴 빠르다」의 경우 ‘중요심, 나무랄이’, “씩은 자들이여, … 시험해보아라.” 등의 표현이 쓰이고 있다.

면서, ①나는 몇 번이고 가슴이 선통해졌다. 아아, ②나는 작가의 - 만약에
 ③내가 작가라면 - 사명을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 ④나는 타락해있는
 것이 아닌가. ⑤나는 마비되어있는 것이 아닌가. (『三冬有感』, 86)

- (11) 진정한 시인은 죽은 후에 나온다? 그것도 그럴싸한 말이다. 그러나 ①나에
 게는 그만한 인내가 없다. ②나는 詩作의 출발부터 시인을 포기했다. ③나
 에게서 시인이 없어졌을 때 ④나는 시를 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⑤나는
 출발부터가 매우 순수하지 않다. ⑥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 ⑦나는 고백은 싫다. (『詩人의 精神은 未知』, 188)

(9)는 '나'의 행동과 일에 대한 서술로 일관되어 있다. 그래서 ①의 '나는'은
 단락 첫머리에 주체어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생략되기 어렵지만 ②의 '나의'와
 ③의 '나는'은 선행 문맥에서 주체 인물이자 서술자로 상정되어 계속 재현되
 므로 생략되어도 자연스럽다. 이때 생략 구문은 정보의 흐름에 따라 사건 서
 술을 진전시켜 나가는 데 비해 ②, ③의 실현 구문은 내용 면에서 '나'가 이야
 기의 주인공임을 일깨워 준다. ②, ③은 '나'가 이야기의 제재 '현기증'의 근원
 지인 '머리'의 주체이고 또 여러 인물과의 관계 속에서 일을 벌이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주체임을 환기한다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②, ③의 '나'의 노출은
 다소 잉여적으로 느껴지며, 이는 그의 자기 확인 성향이 화용적 생략의 未적
 용으로 발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10)은 작가로서의 '나'의 마음가짐을 반성하는 맥락이다. 그래서 '나'가 반
 복되면서 자신의 정신 상황이 점검된다. ①에서 외부 자극을 충격적으로 경험
 한 '나'는 ③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상정하는데, ②, ④, ⑤에서 그 정체성에 비
 추어 의지와 행동이 결여된 채 부정적 변화를 입는 존재로 나타난다. 이때 ①
 의 '나는'은 단락의 주체어, ②의 '나는'은 감탄어 '아아'로 담화 흐름이 전환되
 고 自問으로써 서술태도도 바뀌어 선행 주체어 ①이 그대로 재현되기보다 다
 시금 활성화된 주체어, ③의 '내가'는 삽입절 繫辭文의 주어이다. 따라서 이들
 은 생략되기 어려우나 일반적인 정보 흐름에 따르기보다 '나'에 대한 내용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어서 의미·담화상 초점으로서 예문 (9)의 경우보다 유표
 성을 띤다. 그런데 이들에 비해 ④, ⑤의 '나는'은 ②의 주체성이 유사하게 재현
 되고 있어서 생략될 수 있고 그만큼 강조 기능이 더 두드러진다. 특히 ④, ⑤의

구문은 ② 구문에 평행적인 구조가 반복되어 강조 효과가 더 상승되므로 반성 주체로서의 문제성도 심화된다.

(11)은 시의 정신과 방법을 논하면서 그 자신의 사례를 고백하는 맥락이다. ①의 ‘나에게는’은 일반론에 이어 자신의 사례가 시작되는 대목에서 나온 주제 어이자 의미상 필수적인 부사어, ②의 ‘나는’은 선행어의 재현이되 부사어 아닌 행동주 주어로서 담화 흐름상 약간 발전, 활성화된 주제어, ③의 ‘나에게서’는 선행어 ②의 재현이되 주어 아닌 의미상 필수적인 부사어, ④의 ‘나는’은 바로 앞 ③이 부사어인 데 비해 주어로서 행동주 주어인 면에서는 ②의 재현, ⑤의 ‘나는’은 ②, ④ 線上의 재현이되 선행 내용을 회감, 점검하는 문장의 주제어, ⑥의 ‘내가’는 선행 담화와 층위를 달리하여 자신의 발화 행위와 내용을 점검하는 상위언어 문장의 주어, ⑦의 ‘나는’은 ⑥의 재현이되 ⑥의 점검에 따라 조정된 주제어 들이다. 이때 ①, ③, ⑥의 경우는 생략되기 어렵고 그밖의 경우도 생략이 그리 자연스럽지 않으며, 따라서 이들 ‘나’ 실험 구문은 생략 구문에 비해 문체 기능이 유효적이라 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이들은 일반적인 정보 흐름에 따르기보다 내용·담화상 초점으로서 변화 있게 연속적으로 나타나 필자의 자의식과 갈등을 고백調로 드러내 준다.

다음, ‘나’의 노출이 억제되는 경우로, 먼저 (12)는 글이 필자 자신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되는데 ‘나’가 생략된 예이다. 다만 이 때의 ‘나’는 주체됨이 다소 완화되어 생략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유효성이 두드러지지 않다. 이에 비해 (13)은 글 중간에 단락이 바뀌어 글의 흐름에 변화가 오면서 ‘나’가 생략된 예, (14)은 시적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욕구 주체인 ‘나’가 생략된 예이다. 이들은 ‘나’의 주체됨이 뚜렷한데도 시적 의미 내용의 중요성과 관련된 의도적 생략으로 여겨지는 만큼 더 유효적이다.

(12) ①요즈음은 문학책보다도 경제방면의 책을 훨씬 더 많이 읽게 된다. ②그래야만 사회에 대한 무슨 속죄라도 되는 것같고 저으기 흐릿한 마음이 든다. 또한 <4월> 이후에 달라진 것은 ③국내잡지를 읽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전만하면 송충이같이 근처에 두지도 못하게 하던 불결한 잡지들(문학지는 상기도 불결하다)도 인내성을 발휘해서 읽어 나가면 그중에는 예상보다도 훨씬 진지한 필자들이 많은 데에 ④새삼스러이 부끄러운 마음

도 들고 꺾 대견한 감도 든다. (『밀물』, 27)

(13) ㄱ. ... 수돗가에 씻어놓은 저녁쌀이 튀어나올 듯이 하얗게 보이고, 마루에 올라와 난로가에서 손을 부벼보면 손의 두께까지도 제법 두툼하게 느껴진다.

①피가 녹는 것이라고 생각해본다. 얼음이 녹는 것이 아니라 피가 녹는 것이다. 그리고 ②목욕솔 속의 얼음만이 아닌 한강의 얼음과 바다의 피가 녹는 것을 생각해본다. 그리고 ③그 거대한 사랑의 행위의 유일한 방법이 침묵이라고 단정한다. (『解凍』, 96-97)

ㄴ. ... 이 봄의 과제 앞에서 나는 나를 잊어버린다. ① 제일 먼저 녹는 얼음이 고 싶고,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철이고 싶다. ②제일 먼저 녹는 철이고 싶고,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얼음이고 싶다. (『해동』, 97)

(12)는 글의 첫머리로서 서술자 자신의 신변사와 심경을 당시 사회 상황과 관련지어 토로한다. 처음 ①에서부터 이야기의 주체이자 서술자인 ‘나’가 도입되지 않고 생략되어 이미 조성된, 서술자의 서술 장면과 분위기를 배경 전체로 하여 바로 본 내용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난다. 그런데 ①의 문장은 행동동사 ‘읽다’만이 서술어가 아니고 ‘읽-’이 ‘-게 되다’ 구조에 내포되어 ‘되다’가 모문 서술어가 되는 구문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생략된 주체어이자 주어인 ‘나는’은 ‘읽-’의 행동주에 그치지 않고 ‘-게 되-’라는 사태를 겪는 주체가 되며, 따라서 ‘나는’의 행동주됨은 완화되는 대신 변화 사태의 참여자가 되어 생략될 수 있는 개연성이 커진다. 그럼에도 ‘나는’의 생략 구문은 실현 구문에 비해 다소 덜 자연스럽게 표현 가능 면에서는 전체되는 배경 없이 서술자 ‘나’가 도입되는 실현 구문에 비해 그 효과가 더 인상적이다. 즉 통사적으로는 물론 정보 구조나 흐름 면에서도 글 첫머리에서 실현 구문은 생략 구문에 비해 더 기본적인, 일반적이고 생략 구문은 이 때의 생략 개연성이 화용·담화적 요인과 관련되어 실현 구문보다는 유효적이다. 그리고 첫 문장에서 생략된 ‘나’는 이어지는 문맥 ②-④에서도 계속 생략되며, 이 문장들도 행동동사나 심리형용사를 서술어로 하는 구문이 아니고 ‘... 마음이 들다, ... -다는 것이다, ... 감이 들다’ 등의 구문으로 나타난다. 이 때의 생략 구문들은 정보 흐름상 선행 문맥 주체어와 동일한 ‘나’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구문상 ‘나’의 행동주됨도 완화되므로 첫머리 ①의 경우보다는 덜 유효적이다. 그러나 이 경우 첫 문장으로부터 이어지는 맥락의 연속성에 유의하면, 생략의 연속은 서술자의 서술 태도와 내

적 분위기가 유지, 강화되는 것으로, 행동주됨의 완화는 서술자 자신의 행동과 경험이 자발적이기보다 상황의존적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3ㄱ)은 봄의 解氷에 따른 상념과 사색을 서술하는 글의 중간 부분이다. ①의 선행 단락에서는 ‘나’의 상념이 이어져 온 끝에 피동적 경험 서술어 ‘보이다, 느껴지다’와 관련해 경험주 성분 ‘나는’ 또는 ‘나에게는’이 자연스럽게 생략된다. 그런데 단락이 바뀌는 ①에서는 내용의 흐름이 다소 전환, 비약되는데다가 서술어 ‘생각해보다’도 능동적이어서 ‘나는’의 실현이 기대된다. 그럼에도 ①에서 ‘나는’은 생략되었으며, 따라서 ①에서의 생략은 선행 단락 끝 문장에서의 생략이 일반적인 정보 흐름을 따른 것인 데 비해 유표적이다. 이 때의 유표적 생략은 우선 이 글이 특히 내면적이고 사색적이라는 글의 성격과 관련되는 듯하다. 이 글에서는 전체적으로 ‘나’의 노출이 억제됨으로써 서술자의 내적 분위기와 사색의 흐름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의미적 응집성도 강화되는데 ①의 생략도 그 일환이라는 것이다. 다음, 더 주목되는 점은 단락이 바뀌어 다소 전환, 비약된 내용이 바로 나오고 이어 변형, 반복, 발전됨으로써 사색 내용과 그 흐름이 더욱 前面으로 나와 초점화된다는 것이다. 즉 ‘목욕술의 해빙’에 ‘피가 녹는 것’으로써 유정성과 活物性이 부여되고 그 의미 내용이 ‘것이다’ 구문으로 확인, 강조된다. 나아가 ‘한강의 얼음과 바다의 피’로써 선행 내용이 확대된 다음 ③의 문장에서 ‘생각해보다’보다 斷言力이더 강한 동사 ‘단정하다’로써 그 명제 의미가 더욱 강조된다. 다만 이때 ②, ③에서 ‘나는’의 생략은 정보의 흐름에 따르므로 ①보다는 덜 유표적이다.

(13ㄴ)은 같은 글의 (ㄱ)에 이어지는 끝 단락의 끝 부분이다. 선행 문맥에서 ‘우리의 38선’(분단 현실)을 녹이기 위한 ‘사랑’의 문제가 제기되고 여기에서 그의 대한 성찰과 실천 욕구가 시적 傳言으로 표출된다. ①에서 ‘나’의 생략은 앞 문장에서 주제어로 나온 ‘나’가 정보 흐름상 생략된 것이라 할 수는 있으나 서술어인 욕구의 ‘-고 싶다’ 구문의 경우 주어가 생략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유표적이다. 아울러 의미 내용의 내적 흐름 면에서도 앞 문장의 ‘나를 잊어버리는’ 행위와 ‘얼음이고 싶고, ... 철이고 싶은’ 변환 욕구 사이에는 약간의 비약과 전환이 있어서 ‘그래서 나는’ 정도로 접속어와 욕구 주체를 실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즉 ①의 주어 생략은 글의 마무리 부분에서 필자가 ‘사랑’에 대한 전언과 태도를 강력하게 표명하기 위해 시적이고 수사적인 표현을 초점화하는

데에 유표적으로 쓰인 셈이다. 그리고 ②의 생략도 정보 흐름상 ①의 생략을 이어받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①의 문장 표현과 ②의 문장 표현이 평행적이면서 대비되는 修辭 구조임을 고려할 때 ②의 생략 또한 ①의 경우에 준하는 유표적 쓰임이라 하겠다.

4. ‘우리’

1인칭 복수 대명사 ‘우리’는 본래 화자를 포함하는 화자 쪽 부류를 지칭하지만 구어 장면에서는 화자를 포함하지 않거나 청자 쪽까지 포함하거나 청자 쪽만 지칭하거나 하기도 한다. 글은 필자 중심이어서 독자 쪽을 포함하는 쓰임이 덜할 듯하나 글에서는 필자와 독자를 아우르는 ‘우리’의 보편 문제를 다루는 일도 많아서 그 쓰임의 경향성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글은 특정 장면이 상정되는 경우가 적으므로 화자를 포함하지 않는 화자 쪽 부류나 청자 쪽만의 부류를 지칭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다음, 독자 쪽을 포함하든 않든 ‘우리’의 지칭 부류는 부류의 성격과 범위 면에서 단일하고 私的이고 작은 것에서 복합적이고 公的이고 큰 것에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지칭 부류의 선호 유형은 글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달라지면서도 필자의 현실 인식과 태도를 드러낸다. 이때 ‘우리’는 특히 공적 영역에서 객관적 지칭어(‘문학인, 서민, 한국, 인간’ 등)에 비해 주관성과 공동체 의식이 투사, 부각된다. 그리고 특이하게, ‘우리’는 필자 자신의 일에 대해 그 주체됨을 나타내는 데에 쓰이기도 한다. 이를테면 논문의 필자가 자신의 주장을 펴면서 ‘필자, 나’ 대신 ‘우리’를 쓰는 것 같은 예이다. 이 때에는 필자 주장의 주체가 필자를 포함하는 불분명한 부류로 상정, 실현됨으로써 필자의 주장이 특정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더 많은 이들의 부류에 공유되어 그 일반성과 객관성이 더 확보되는 것 같은 함축 의미가 암시된다. 한편 표현 형식 면에서는 각 개인을 의식할 경우에 ‘우리들’, 부류의 성격을 확인, 부각하고자 할 경우에 ‘우리 부부’류가 쓰이기도 한다.

그는 개인성과 자의식이 강하면서도 공동의 현실에 대한 의식과 지향성 또한 강하다. 그래서 필자 지칭어 ‘나’가 ‘우리’ 속에서 확대되어 개인 의식이 공동체·사회 의식과 맞물려 통합되기도 하고 ‘나’가 ‘우리’와 어긋나 같등을 빚기도 한다. 私的 수필류에서는 ‘우리’가 가족을 중심으로 필자 쪽 부류를 지칭하는 경

우가 많다. 이에 비해 문학·時事 문제를 다루는 논설, 평론류에서는 시인이나 문학인, 지식인, 서민이나 시민·대중, 민족, 同시대인 등 독자 쪽도 포함하는 다양한 부류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그는 고유한 개인의 경우, 어떤 부류에 그 一員으로 속하는 경우, 개인이 동질적으로 확대되어 부류에 통합되는 경우, 개인이 이질화되어 부류와 어긋나는 경우 등을 의식해 분간하는 편이다. 따라서 필자 자신의 일에 ‘우리’를 쓰는 예는 매우 드문데, 자신의 관점을 일반화하고자 하는 맥락에서 유사 예가 보인다. 한편 ‘우리’는 어떤 맥락에서 그와 이질적이거나 대비되는 다른 부류와 함께 쓰이는데, 이 때에는 해당 부류를 포괄적으로 묶어 다른 부류와 배타적으로 구별해 각 부류를 특성화해 주게 된다.

먼저 그가 개인성의 의식 이전에 부류의 일원인 경우는 크게 私의 부류인 경우, 일반적 부류의 경우, 문학 관련 부류로 나뉘 볼 수 있다. 사적 부류에서는 그의 가족을 가리키되 그 자신과 가족 간의 본질적 동일 관계가 문제되는 예 (14), 문학·예술계의 知人들을 가리키면서 당시의 문화적 思潮와 분위기를 반영하는 (15) 등이 특히 눈에 띈다. 일반적 부류는 세대 (16), 사회·문화 공동체 (17), 대중·서민 (18), 국가·민족 (19), 同시대인이나 보편적 인간 (20) 등과 같이 범위와 성격 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들은 독자의 일부나 대부분 또는 전부를 포함 지칭하면서 그가 지니는 인간·사회적 속성의 복합성을 다층적으로 반영한다.

(14) 모든 문제는 우리집의 울타리 안에서 싸워져야 하고 급기야는 내 안에서 싸워져야 한다.

… 아아, 나는 작가의 - 만약에 내가 작가라면 - 사명을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 … 이 내 아내에, 이 내 아들놈에, 이 안락에, 이 무사에, 이 타협에, 이 체념에 마비되어있는 것이 아닌가. … 가만히 생각해보니, 역시 원수는 내 안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든다. 우리집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다. 우리집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 敵만 해도 너무나 힘에 겨웁다. (『삼동유감』, 86)

(15) 寅煥의 최면술의 스승은 따로 있었다. 朴一英이라는 畫名을 가진 초현실주의 화가였다. 그 때 우리들은 그를 <복쌩>이라는 일제 시대의 호칭을 그대로 부르고 있었다. (『茉莉書畵』, 72)

(16) ㄱ. 문제는 그들의 다음세대인 우리들이다. 우리들한테는 옷이 없다. 양복? 우리의 옷이 아니다. 모르지, 장치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우리의 옷이

- 못되고 있다. (『흰옷』, 109-110)
- 나. 지금 20대의 젊은이들은 우리들이 「술이나 눈물이나」를 감격해서 들던 고전적 哀感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韓國人の 哀愁』, 267)
- (17) 가. 우리는 무엇보다도 무엇이 달라져야 할 것인가부터 다시한번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이 달라져야 할 것인가? 언론자유다. (『創作自由의 조건』, 130)
- 나. 우리의 문화를 지배하는 <에비>를 이 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오늘 날의 우리들의 <에비>는 결코 <구체적인 대상을 가리키는 名詞가 아닌> <가상적인 어떤 금제의 힘>이 아니다. (『知識人の 社會參與』, 156)
- (18) 가. 대체로 돈있는 사람들이나 권력있는 사람들은 남의 말을 공손히 받아들이지 않는다. … 우리들은 그것을 불쾌하게 여기면서도 또 마음 한구석으로는 매력을 느낀다. (『民樂記』, 81)
- 나. 오늘날 우리들의 잠재의식은 大制度에는 거저가 없다는 공포에 젖어있다. 저 큰 집을 어떻게 거저 들어갈 수 있을까? 입장료가 없을까? (『敎會美觀에 대하여』, 111)
- (19) 가. 센키에비치의 고전적 작품은 폴란드 국민의 정신에 영향을 주고 영광된 과거를 기억하게 하고, … . 센키에비치의 문학과 투쟁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도 절실히 요청된다. (『作品 속에 담은 祖國의 試鍊』, 234-235)
- 나. 그러면 진정한 아름다운 우리말의 낱말은? 진정한 시의 테두리 속에서 살아있는 낱말들이다. 그리고 그런 말들이 반드시 순수한 우리의 고유 낱말만이 아닌 것은 물론이다. (『가장 아름다운 우리말 열 개』, 281-282)
- (20) 가. 심금의 교류를 할 수 있는 언어, 오늘날의 우리들이 처해있는 인간의 형상을 전달하는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언어, 인간의 장래의 목적을 위해서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유로운 언어 - 이러한 언어가 없는 사회는 단순한 전달과 노예의 언어밖에는 갖고 있지 않다. (『히프레스文學論』, 204)
- 나. 다시 말해두지만 제 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란 어느 특정된 인물이 될 수도 없고, 어떤 특정된 시간이 될 수도 없다. 우리는 일순간도 마음을 못 놓는다. 흔히 인용되는 예를 들자면 우리는 「시지프의 신화」에 나오는 육중한 바윗돌을 밀고 낭떠러지를 기어올라가는 사람들이다. (『제 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은 없는가』, 142-143)

(14)에서 ‘우리(집)’는 ‘나’가 당연히 속하는 가족을 가리키는데, 작가로서 자신의 당위를 반성하는 이 맥락에서는 바로 그 본질적 공유 관계가 자신의 당위 履行에 장애가 될 수 있음을 내비친다. (15)의 ‘우리들’은 사적으로 그와 교분 있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가리키면서 半公적으로는 인간성 중심으로 자유롭게 교류한 局外者 기질의 문화·예술인 집단을 함축한다.

(16ㄱ)에서 ‘우리들’은 서양과 일본 중심 근대화 과정에서 전통 문화와 단절된 세대로서 前근대성과 전통 문화를 아울러 지닌 세대인 ‘그들’과 대비된다. (ㄴ)의 ‘우리들’은 일제 강점기를 겪고 어두운 정서에 길든 기성 세대로서 광복 후 성장해서 외래적이고 분방한 감성에 익숙한 젊은 세대와 대비된다. 전통에서 근대를 거쳐 현대로 移行되는 과정에서 과거 세대와 신세대의 중간에 처한 필자 부류의 처지가 반영되었다 하겠다. (17)은 정치·문화·언론이 매우 제약, 억압되던 시기의 時論者로서 ‘우리(들)’은 그러한 상황에 처한 사회 구성원들을 가리키며, (ㄴ)에서 ‘우리’와 ‘우리들’은 각각 상대적으로 집단성과 개인성을 중시하고 있다 하겠다. 이때 ‘우리’는 같은 사회의 독자도 포함하는데 필자의 생각에 공감하지 않는 독자의 경우 자신이 ‘우리’에 포함되는 것에 동감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필자 편에서 보면 자신의 생각을 자신과 생각이 다른 독자에게까지 전이, 확대하는 수사 전략이 되는 셈이다.

(18)의 ‘우리들’은 지배층, 특권층, 현대 사회의 각종 거대한 힘 앞에서 위축되는 일반 대중이나 서민층이다. 이때 일반 대중이나 서민층에 해당하지 않는 독자층의 경우에는 필자 생각에 공감해 자신을 필자 편에 移入할 수도 있지만, 대개 ‘우리들’이 사회 구성 부류의 일부이고 자신들은 그에 속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우리들’을 객관화해 제삼자의 시점에서 보게 된다. (19ㄱ)의 ‘우리’는 ‘국가, 국민, 민족’으로 두루 해석되고 (ㄴ)의 ‘우리’는 ‘민족’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객관적, 전체적으로 규정되므로 같은 국민이나 민족에 속하는 독자는 자신의 처지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속하게 된다. (20ㄱ)의 ‘우리들’은 그 의미가 ‘오늘날의’로써 한정된다고 볼 경우 보편적인 ‘인간, 인류’로 해석되고, ‘오늘날의 우리들’로 한정, 특화된 부류를 그대로 가리켜 강조한다고 볼 경우 ‘동시대인’으로서의 ‘현대인’으로 해석된다. 어쨌든 이들은 전자는 물론 후자도 보편성을 띤다. (ㄴ)의 ‘우리’는 의미 맥락상 ‘제 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에 조응하므로 일견 특정 부류의 사람으로 해석될 수 있

다. 그러나 이 때의 의미 한정(‘제 정신을 갖고 사는’)은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자각, 창조, 履行’의 모습이고 필자는 그러한 보편적 가능성과 당위를 전하기 위해 그 주체들을 모든 독자까지 포괄할 수 있는 ‘우리’로 지칭한 것이다.

문학 관련 부류의 경우는 크게, 일반적 부류의 연장선에서 문학인이 맞물리고 포함되는 경우와 문학인을 지칭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로는 (21)의 사회·문화 공동체 관련 예, (22)의 국가 관련 예, (23)의 문학 공동체 관련 예, 후자로는 문단·시단이나 문학인·시인 등의 예 (24)를 들 수 있다.

- (21) ㄱ. 쉽게 말하자면 우리의 생활현실도 제대로 담겨있지 않고, 난해한 시라고 하지만 제대로 난해한 시도 없다. (『생활現實과 詩』, 194)
 - ㄴ. 눈으로는 차마 볼 수 없는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참말로 눈을 돌릴 곳이 없다. 우리의 양심의 24시간은 온통 고문의 연속이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시는 좀더 여유를 가져야 할 것 같다. (『생활현실과 詩』, 196)
- (22) ㄱ. 이것만 보아도 우리의 문학이 얼마나 세계의 조류를 등지고 있는가를 측량할 수 있다. … 작품과 평론과의 사이에 친밀한 유기적 관계같은 것은 우리 문단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 우리 작가들은 외국문학을 보지 않는 것을 명예처럼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다. (『히프레스 문학론』, 202-204)
 - ㄴ. 나는 우리 작자의 생리가 일본시인에 비해서 退嬰的이라고 보고 싶지는 않다. (『卽物詩의 試驗』, 354)
- (23) ㄱ. 그러나 솔직한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 문학 40년사에서 언제 우리들은 제대로 민주적 자유를 경험한 일이 있었는가? (『히프레스 문학론』, 206)
 - ㄴ. 우리 주위에는 이 詩의 경우와 같이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던 것 중에서 의외로 기적이 발견되는 수가 있다. (『생활현실과 詩』, 198-199)
- (24) ㄱ. 오늘날의 서정시에서 우리들이 唾棄해야 할 것은 시대착오적인 상상인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인생의 본원적인 문제 - 즉 생명 - 와의 대결이 스며있어야 한다. … 이런 점에서는 우리 시단에서 金顯承이 훨씬 세련돼있다. (『지성의 가능성』, 374-375)
 - ㄴ. 우리들은 과연 그동안에 문학의 권위와 문학자의 존엄을 회수할 수 있었는가? (『시의 <뉴 프런티어>』, 175)
 - ㄷ. 대체로 시의 경험이 낮은 시기에는, 우리들은 시를 <찾으려고> 몸부림

을 치는 수가 많으나, … (『생활의 극복』, 59)

(21ㄱ)의 ‘우리’는 당시 同시대를 사는 한국 사회 구성원들을 총칭하는데 문학의 표현·模寫 대상으로서 대상화되고 있다. (ㄴ)의 ‘우리’는 당시 사회의 상황이나 현실을 공유하는 一員이면서 문학인·시인으로서 정체성도 지녀야 하는 복합성, 重層性을 띤다. (22ㄱ)의 ‘우리’들은 문맥상, ‘세계, 외국’등과의 관계 속에서 ‘국가’로 해석되는데 그래서 이런 의미의 지칭어는 흔히 ‘우리나라, 한국’으로도 나타난다. 이때 ‘우리’ 계열(‘우리(나라) 문학’)은 ‘한국’ 계열(‘한국문학’)에 비해 주관성과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한국’ 계열은 객관성과 국가 의식이 강하여 개념화도 강해 지는 경향이 있다. 한편 ‘우리’가 속격형 ‘우리’로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국가’의 의미로 해석되나 속격 비실현형의 경우는 ‘우리’와 후행 명사가 동격으로 인식되어 후행 명사 관련 부류(‘문학, 문단, 작가’ 등)의 공동체됨을 주관적, 친화적으로 부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ㄴ)의 ‘우리’는 특정 시인의 작품을 일본 시인의 경우와 비교하는 맥락으로 필자가 주관 친화적으로 그 의의를 확대한 것이다. (23ㄱ)의 ‘우리들’, (ㄴ)의 ‘우리’는 문학 주체로서의 문학인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문학 享有者, 문화인으로 확대 해석될 여지를 열어 놓고 있다.

(24ㄱ)은 시일평에서 구체적 시론, 작품 해석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맥락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시담론의 주체인 시인·문학인으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 시단’의 ‘우리’도 ‘한국’보다는 ‘시단’의 공동체됨을 부각하는 쪽으로 해석될 적하다. (ㄴ), (ㄷ)은 문학 주체, 시 창작의 관점에서 서술되는 글 맥락으로서 이 때의 ‘우리들’은 각각 ‘문학인’, ‘시인’으로 해석된다.

다음, 그의 개인 의식이 동질적으로 확대되어 더 큰 부류에 통합되는 경우로는, 문제의식을 통해 개별자로서의 ‘나’와 보편적 인간으로서의 ‘우리(들)’이 상응하는 (25), 문학인·시인으로서의 ‘나’의 문제가 문학·시 공동체로서의 ‘우리(들)’의 문제와 결부, 통합되는 (26) 들이 나타난다.

(25) 제 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은 없는가는, 따라서 나는 내 정신을 갖고 살고 있는가로 귀착된다. … 엄격히 말하자면 <제 정신을 갖고 사는> <남>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것이 <제 정신을 가진> 비평의 객체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창조생활(넓은 의미의 창조생활)을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 우리는 「시지프의 신화」에 나오는 육중한 바윗돌을 밀고 낭떠러지를 기어올라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러한 自覺人의 세계의 대열 속에 미약한 한국의 발달한 젊은 세대가 한 사람이라도 더 끼이게 된다는 것은 우리들의 오늘날의 그지없는 기쁨이다. (「제 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은 없는가」, 142-143)

(26) ㄱ.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시단 전체가 시들해지기 전에, 타락한 내 자신에 대한 반성이 번갯불같이 들이닥친다. ... 아무튼 나는 그의 재주로 인해서 나의 문학생활과 우리의 문학생활의 허위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오래간만에 해보았다.(「재주」, 70)

ㄴ. 우리들이 우리들의 적들과 맞선다는 이 사실이 곧 우리에게는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시인의 간략과 영광(소위 25시의 자랑)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우리들의 적은 한국의 정당과 같은 섹트주의가 아니라 우리들 對 爾餘全部이다. 혹은 나 對 전세상이다. (「시의 <뉴 프런티어>」, 176-177)

(25)에서는 ‘제 정신을 갖고 사는, 창조적 자각’의 문제가 필자 자신을 비롯한 개인 ‘나’의 주체적 문제로 인식되고 아울러 ‘남’과 ‘나’가 공유하는 ‘우리’의 보편적 문제로 일반화된다. 이는 당시 한국의 사회·문화 상황에서 제기된 바 ‘우리들’의 과제에 대한 필자의 잠정적 답변인 셈이다. (26ㄱ)에서는 ‘나’가 ‘우리’에 포함되는 관계가 대등한 連言 관계 ‘과’ 접속 구성으로 나타나 다소 어색하다. 그러나 오히려 개인의 주체됨과 공동체 속의 구성원됨이 상응하면서 병존하는 점이 부각되어 시문학인으로서 ‘나’와 ‘우리(시단)’의 문제와 그 共謀性에 대한 반성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진다. (ㄴ)은 문학인으로서 ‘우리(들)’이 극심한 제약에 처한 사회·문화적 상황 속에서 그러한 제약을 ‘적’으로 인식하는 맥락이다. ‘우리들’ 또는 ‘나’와 ‘적’의 대립 관계가 나열되고 있는데 포함 관계인 ‘우리(들)’과 ‘나’가 대등한 選言 관계 ‘혹은’ 구성으로 병치되어 다소 어색하다. 그러나 이 때에도 주체성과 공동성이 상응, 병존하여 ‘적’에 대한 ‘우리들/나’의 대립의식과 ‘우리들’과 ‘나’ 간의 연대의식이 더욱 강조된다.

개인이 이질화되어 공동체 부류와 어긋나게 되는 경우로는, 필자 자신인 ‘나’와 ‘우리’ 간의 편차가 토로되는 (27), 다른 시인에게서 엿보이는 ‘나’와 ‘우

리들'의 간격을 지적한 (28) 들이 나타난다.

(27) 아무튼 요즘은 집에 들어앉아있는 시간이 많고, 자연히 신변잡사에 취재한 것이 많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그 반동으로 <우리>라는 말을 써보려고 했는데, 하나도 성공한 것이 없는 것 같다. … 「미역국」이후에 두어 편 가량 시도해보았는데, 이것은 <나>지 진정한 <우리>가 아닌 것 같다. (『詩作 노트』, 294)

(28)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이 詩는 오늘의 우리의 생활현실을 담지 못했다. 이 세계는 어느 특수층에 속하는 나의 생활현실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활현실이 아니다. (『생활현실과 시』, 195)

(27)에서는 그 자신의 시에서 쓴 '우리'의 의미가 그가 의도한 공동체 차원에 부합하지 못하고 '나'의 개인 차원에 제한되고 있음을自省한다. (28)에서는 다른 시인의 시에 나타난 소시민 생활 정서가 공동체 현실에 상응하지 못하고 개인이나 특수층에 국한된 것임을 지적하면서 '나'와 '우리들'을 대비한다.

필자 자신의 서술 내용에 '우리'를 쓰는 예는 보기 어려운데, 서술의 소재는 그가 구했으되 서술 내용은 일반적이라고 스스로 여겨지는 경우에 쓴 것으로 보인다. 다른이의 글에서 어휘나 표현의 의미 문제를 지적한 (29ㄱ), 다른 시인의 시에 대한 논평 예 (ㄴ), 자신의 경험과 관련된 (ㄷ) 들을 볼 수 있다.

(29) ㄱ. 『… 그 행위의 밑에 만의 일이라도 인터내셔널한 생각이 깔린 소치였다면 이는 관련자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일반문화인의 성향과 관련시켜 심각히 생각해볼 일이라는 말이다. …』 우리는 여기서 우선 <인터내셔널>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따라서 이것이 <일반문화인의 성향>과 어떻게 <관련시켜 심각히 생각해>봐야 할지 알 도리가 없다. (『지식인의 사회참여』, 154)

ㄴ. 그런데 이 작자의 집요한 <내 언어>의 추구하고 <학대>가 <튜립 혹은 얇은땀>이 花瓣만한 그 표정을 / 나는 끝내 알뜰히는 그려낼 수가 없다>의 염원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때, 우리들은 이 작자가 추구하는 것이 모더니티가 아니라는 것을 確知할 수 있다. (『모더니티의 문제』, 352)

ㄷ. 저 다 해진 신에, 저 더러운 옷에 저 반짝거리는 머리가 어떻게 어울린다고 저 불필요한 치장을 하나, 하고 처음에는 화도 내보았지만 … 사랑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얼마나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우리들이
가 하는 원시적인 겸손한 반성까지도 든다. (『무허가 이발소』, 99)

(297)에서 ‘인터내셔널’과 관련 문맥에 대해 필자가 제기한 내용은 일반 독
자도 당연히 공감할 것이라기보다 그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그는 평소
자신과 생각이 통하는 지식인·독자 부류를 비롯해 자신의 생각에 공감할 가
능성이 큰 부류까지 염두에 두고 ‘우리’를 씌으로써 자신의 문제 제기를 공인
받고자 한 듯하다. (ㄴ)에서 시의 해석과 논평 내용 또한 일반 시문학인이 당연
히 동의하리라 보기 어렵다. 자신과 시 논평의 눈이 통하는 시문학인 부류를
기반으로 자신의 논평을 수용할 부류를 상정함으로써 자기 논평의 설득력을
높이려 했다 하겠다. (ㄷ)에서 필자의 경험과 생각도 일반인이나 독자들에게
거의 수용되리라 단정하기 어렵다. 이때 ‘우리들’은 자신의 편견에 가려 서민
이하층의 처지를 살피지 못한 필자 및 그런 부류를 지칭함과 아울러 이런 문제
의식에 공감할 부류까지 포괄함으로써, 필자의 깨달음을 공동의 몫으로 전달
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그와 대비, 대립되는 부류와 함께 쓰여 각 부류의 특성이 강조되고
필자 쪽 ‘우리’의 연대감과 친화력이 강화되기도 한다. ‘우리(들)’과 ‘그들’이 세대
차이를 반영하는 (30), ‘나, 우리’와 ‘그, 그녀, 그들’ 간에 중류·서민층과 상류·
부유층의 대비가 나타나는 (31), ‘우리(들)’과 ‘당신들’이 ‘일반 문학·문화인, 지
식인층’과 ‘진취적 문학 운동 집단’의 특화 대비에 상응하는 (32) 등이 보인다.

(30) 그들에게는 흰옷을 검은옷이나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입을 줄 알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입고 있는 것 같다. 말하자면 그들은 어떻게 자기 옷을 가지고
있다. 당분간은 상관없으리라. 구태여 물감을 들이라고 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문제는 그들의 다음세대인 우리들이다. 우리들한테는 옷이 없다. … 말하자
면 양복은 우리들의 친근한 작업복도 못되고 자랑스러운 호셔도 못된다. 말하
자면 우리들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소화되어있지 않다. (『흰옷』, 109-110)

(31) … 나는 그의 장황한 얘기는 끝까지 정성스럽게 들어야 한다. 나는 그들
부부가 그야말로 돈을 몰같이 쓰면서 나를 환대해주는 데 야코가 죽은 터이
라 … 암전히 듣고 있었을 것이다.

그들에게서 받은 힘의 마력은 서울에 돌아오고 나서도 한참동안 풀리지 않았

다. ... 강릉에서 받은 환영의 백분지 일이라도 답례를 할까 하고 우리 부부는 그녀의 에스코트를 하고 하루 반 동안을 거동을 같이 했다. (『민락기』, 82)

(32) 鄭貴永, 盧榮壽, 金昌稷 제씨의 「詩와 詩論」第三輯의 선언문을 환영한다. 근자에 필자가 본 유일한 뉴 프런티어 운동의 싹. 사실 우리나라의 문단은 당신들의 말처럼 24시간이 전부 통행금지시간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24시간이 전부 통행시간이 될 필요도 없다. 그중의 단 한 시간이나 단 10분만이라도 우리들에게 통행이 해제된다면 우리들은 우리들의 적들과 맞설 수 있다. (『시의 <뉴 프런티어>』, 176)

(30)에서 전근대, 전통 세대인 ‘그들’은 ‘흰옷’이 생활화되어 있는 반면 서양식 근대화의 세례를 입은 ‘우리(들)’은 전통 ‘흰옷’은 상실했고 ‘양복’은 생경하다. (31)에서 ‘그, 그들, 그녀’는 ‘손아래 매부, 누이동생’에 조롱하거나 그들을 直示함과 아울러 문맥·정황 속에서 ‘나, 우리’와 얽혀 대조됨으로써 서로 다른 계층의 태도와 생활 방식의 차이가 대립적으로 나타난다. (32)에서는 억압적 통제 상황에 처한 문학 공동체 ‘우리들’ 중 상황 타개를 위해 움직인 문학 집단을 따로 ‘당신들’로 지칭하고 상황과 맞서는 ‘우리들’의 분발과 노력을 촉구한다. 이때 문학 집단을 단순 조용어 ‘그들’로 지칭하는 대신 대화 상대인 ‘당신들’로 지칭함으로써 그 모임의 의의를 부각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그 모임도 ‘우리들’로 통합됨을 내비친다.

5. ‘필자’류

글에서 필자 자신을 대명사 아닌 일반 명사로 지칭하는 ‘필자’류 지칭어는 자신을 객관화하고 격식있게 말하는 경우에 쓰인다. 그래서 객관적 주제나 대상을 다루는 논설, 논문류에서 주로 쓰이되 수필에서도 객관성이 중시되는 맥락에서, 그리고 주관적 태도 표출을 절제하는 필자의 경우에 선호된다. 그도 글의 종류나 성격, 맥락 면에서는 이러한 일반적 경향에 따르며, 필자의 성향 면에서는 오히려 자신의 주관성을 드러내는 쪽이므로 전체적으로 ‘필자’류 사용을 선호한다 보기 어렵다. 특별히, 객관적 자료나 사실에 의거한 논지 전개, 公的 전언 표명, 감정 억제가 필요한 논쟁들의 맥락에서 ‘필자’류의 쓰임이 두드러진다. 지칭어 어휘는 거의 ‘필자’가 쓰이나 詩評류에서 ‘평자’, 드물게 ‘본

인'도 나타난다.

먼저, 글의 종류나 성격과 관련해 '필자'가 주로 쓰이는 경우를 보면서, 맥락에 따라 '나'가 쓰이는 예도 살펴보고 나아가 글 유형은 비슷하면서도 '나'가 쓰이는 예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다. (33ㄱ)은 주로 개별 시인·작품을 다루는 월평으로 필자 나름의 일반론을 펴는 맥락에서 '나'가 쓰인 예, (ㄴ)은 객관적 논의 대상이 될 문제에 관한 문화 時評, (34)는 시대 상황과 관련해 문학의 본질과 당위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時論, (35)는 관점과 태도의 차이에 따른 논쟁 사례로서 (ㄱ)은 문학 풍토의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 (ㄴ)은 다른 이의 비판에 대해 재반론한 시 평론 들이다.

- (33) ㄱ. 자기의 땀내. 나는 땀내보다도 <자기>에 언더라인을 한다. ... 특히 「몸의 勞動」같은 작품은 독특한 체취를 풍기는 점에서 필자나름의 어떤 향수까지도 느꼈던 것이다. ... 그런데 평자가 《四季》의 동인들의 작품에서 일률적으로 받은 인상은 <言語>의 조탁에 지나치게 <피나는 고통>을 집중하고 있는 듯하다는 것이다. (「體臭의 신뢰감」, 386-389)
- ㄴ. 필자는 한자 약자화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고, 지금 막 쓴 <全廢>의 <廢>字 같은 것도 원고지에 쓸 때는 ... (「實利없는 勞苦」, 151)
- (34) 필자도 시를 쓰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자기 얼굴에 짐뱃기가 될까보아 ... 사실을 고백하자면 나는 그 기자의 말을 듣고 내심으로는 오히려 통쾌한 감이 들었고, ... 그런데 우리나라의 시는 필자가 보기에는 벽찬 호흡이 요구하는 벽찬 영혼의 호소에 호응함에 있어서 완전히 낙제점을 받고 보기 좋게 나가떨어지고 말았다. ... 다만 필자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4월 이후의 우리나라 시작품에 대해서 젊은 층들이 영혼의 교류를 느끼지 못하고 ... (「讀者의 不信任」, 119-121)
- (35) ㄱ. 필자는 일제시대 말기에 淸水金이라는 희극배우의 무대를 본 일이 있는데, ... 추천제를 공박하는 세속적인 원인으로서 우선 가장 큰 것이라고 필자에게 느껴지는 것은, 문인들의 수가, 특히 시인들의 수가 왜 이렇게 많으냐는 것이다. (「文壇推薦制 廢止論」, 146)
- ㄴ. ... 필자로서는 평소에 품고 있던 현대시에 대한 소신과 우리 시단에 대한 불만을 일관성있게 반영시켜보느라고 노력했고, ... 鳳健군은 필자의 평론뿐이 아니라 필자의 시까지도 아비한 언사를 써가면서 공격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그가 가한 필자의 시작품에 대한 공박의 부분은

되도록 문제 삼지 않으려고 하며, ... (『문맥을 모르는 시인들』, 217-218)

(33ㄱ)에서 구체적인 분석과 평가에서는 ‘필자, 평자’가 쓰이면서도 立論에서 자신의 주관적 관점을 드러낼 때에는 ‘나’가 쓰였다. (ㄴ)은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事案에 대해 비전문가로서 異議를 다는 것이기에 자신을 덜 드러내는 ‘필자’가 쓰였을 것이다. (34)는 비판의 강도와 요구의 어조가 강한 만큼 자기 전언의 객관성과 공신력을 얻는 데에 유리한 ‘필자’가 쓰인 듯하다. 다만 선행 문맥에서의 일화 내용(‘기자와의 대화’)을 다시 언급하는 맥락에서 ‘나’가 쓰였는데, 이는 그 일화 내용이 主전언이라기보다 배경적 내용이고 자신의 私的 경험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35ㄱ)은 기존 질서와 직결되고 현실적으로 민감한 주제인 추천제에 대해 강력하게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필자도 이를 의식해, 객관성과 공식성의 확보 외에 주장의 공격성과 상대의 정서적 반응을 완화하기 위해 ‘필자’를 쓴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자신이 경험한 일화를 소개하는 부분에서도 ‘필자’가 쓰였다. (ㄴ)은 문학적 관점과 태도가 다르고 글에 정서가 개입되는 관계에 있는 상대에 대한 재반론이다. 이 때의 ‘필자’의 일관된 쓰임은 자기 주장의 객관성과 공식성을 유지하고 표면적 형식 면에서도 자신의 공격성과 정서 표출을 절제하기 위한 장치라 여겨진다.

그런데 위의 경우들과 비슷한 유형의 글들에서도 ‘나’가 일관되게 또는 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33ㄱ)은 1966년 7월의 월평인데 1964년 6월 이전의 월평에서는 ‘나’가 주로 쓰이며, 월평과 비슷한 성격인 年評들에서도 ‘나’가 주로 쓰였다(『世代交替의 延手票』, 『〈難解〉의 帳幕』). (34) 같은 문학 時論류(『제 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은 없는가』) (35ㄴ) 연장선의 詩論류(『생활현실과 시』, 『反詩論』, 『詩여, 침을 뱉어라』¹⁶⁾) 또 (35ㄴ) 같은 논쟁·반론류(『實驗的인 문학과 정치적 자유』, 『〈불온〉성에 대한 비과학적인 억측』) 등에서도 ‘나’가 쓰였다. 이들에 대해서는 대개 다음의 경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월평의 경우 서술 태도 면에서 주관성 표출에서 객관화 쪽으로의 변화를 상정해 볼 수 있고, 연평에서는 평자 나름의 일반론이 비중있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나’ 선택의 개인성이 높아 진다고 생각된다. 논설류의 경우에는, 필자 개인의

16) 『시여 침을 뱉어라』의 경우 문학 세미나에서의 구두 발표 원고라는 점이 고려될 수 있다.

개성적 관점·주장·방법·어조, 생활·경험·자의식 등이 중시되고 표출될 수록 ‘나’가 선호될텐데 그의 논설, 詩評, 평론들은 그런 성향이 강한 편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논쟁의 경우는 (35ㄴ)은 인간·정서 면과 문학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완화, 절제하고자 한 데 비해 李御寧씨와의 논쟁은 知的 논리와 時局觀의 차이가 주로 문제되기에 필자 지칭어에 그리 구애받지 않고 논쟁 자체에 충실했으리라는 것이다.

다음, 같은 글에서 ‘필자’와 ‘나’가 같이 쓰이는 사례를 보면서 맥락에 따라 두 지칭어가 나타나는 양상을 간단히 살핀다. (36)은 문학 관련 時論 예이다. 그리고 특이하게 ‘필자’ 대신 ‘본인’이 쓰인 예 (37)을 본다. 끝으로 ‘필자’보다 더 객관적인 일반 명사 표현으로 직업 지칭어가 쓰인 (38) 예를 본다.

(36) ... 모 여류시인한테 ①나는 『한국에 언론자유가 있다고 봅니까?』하고 물었더니 ...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문학을 해본 일이 없고 우리나라에는 과거 십수년동안 문학작품이 없었다고 ②나는 감히 말하고 싶다. ... 張正 권 하에서는 9할의 자유가 있으니 얼마나 나아졌느냐고 말하고 싶은 국회의원이 있을성싶다. 아니 국회의원뿐 아니라 ③필자 자신 역시 그러한 망상과 유혹에 빠지기 쉬운 요즈음이다. 솔직히 말해서 간첩방지주간이나 五列이니 國是니 할 때마다 ④나는 옛이나 다름이 없이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 ⑤필자부터도 쓸데없이 몸을 다치기는 싫다. 정말 공산주의자라면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자업자득하는 수도 있겠지만, ... ⑥필자는 앞으로 문학자들이나 각 문학단체가 규합하여 사회에 대한 통일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움직임에 가질 수 있게 되는 날이 오기를 ... (『창작자유의 조건』, 129-131)

(37) 지난 2월 27일자[조선일보]의 「實驗的인 문학과 政治的 自由」라는 拙論에서, 본인은 <모든 전위문학은 불온>하고 <모든 살아있는 문화는 본질적으로 불온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 李御寧씨는 이 불온성을 정치적인 불온성으로만 고의적으로 좁혀 규정하면서 본인의 지론을 이데올로기에 봉사하는 전체주의의 동조자정도의 것으로 몰아버리고 있다. (『<불온>성에 대한 비과학적인 억측』, 161)

(38) 나의 이 질문에 답하는 그녀의 표정을 나는 살핀다. 고리대금을 하는 시인의 이 질문에 대답하는 고리대금을 하는 소설가의 표정을 살핀다. 고리대금을 하는 소설가가 라디오 드라마를 써야 좋으냐는 질문을 한다.

… 그 질문에 대해서 고리대금을 하는 시인이 대답을 하려고 한다. (『金星 라디오』, 66)

(36)은 당시 정치 상황과 관련해 창작에서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주제가 강력한 공적 전언을 전하는 만큼 주 논 의 맥락 중심으로 ‘필자’가 쓰인다. 그런데 도입부와 전개부에서는 필자 개인의 일화, 심경, 내면 등이 인상적으로 서술되며 이 때에는 ‘나’가 쓰인다. 구체적으로 ‘필자’의 쓰임 ③은 언론 자유에 대한 잘못된 인식, ⑤는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정치·이념 상황, ⑥은 마무리 부분으로서 미래의 언론 자유 쟁취를 위한 노력 등 객관적 핵심 논지나 내용들과 관련된다. 이에 비해 ‘나’의 쓰임 ①은 도입부의 일화로서 문제 제기 의 계기, ②는 한국의 제약된 문학 상황에 대한 필자의 착잡하고 극단적인 심경, ④는 필자의 과거事와 관련된 내부 의식 등 주 내용을 주관적 측면에서 유도, 강조, 내면화해 준다.

(37)은 자기 글을 비판한 상대 글에 대한 반론의 서두 부분으로, 반론을 하게 된 경위와 핵심 쟁점을 압축하고 있다. 필자 지칭어 ‘본인’은 ‘필자’에 비해 덜 객관적이고 격식적이며 자기 권위적인데, 여기서는 논쟁에 임해 자기 주장의 공식성과 공신력, 태도 면에서의 책임성과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려는 표지라 여겨진다. (38)에서 ‘나’는 ‘고리대금을 하는 시인’으로 환언 변주된 다음 이어지는 문맥에서 ‘시인’형으로 반복 지칭된다. 이는 ‘나’가 시인으로서의 본령을 지키지 못하고 세속화, 物神化되는 것에 대해 ‘나’를 직업적 정체성 면에서 객관화함으로써 자기 풍자적으로 자신과 동료 소설가를 戲畫化한 것이라 하겠다.

6. 결론

글에서 필자 지칭어의 표현 양상은 필자가 서술 상황, 내용, 관련 부류와의 관계 등에 대해 지니는 인식과 태도를 반영한다. 즉 필자 지칭어의 실현 여부, ‘나’ 또는 ‘필자’의 선택, ‘우리’의 쓰임 들은 필자의 주관성이나 객관성, 공동체 의식 등을 반영하며, 이는 글의 종류와 맥락, 필자의 성향 등에 따라 어떤 경향성을 보인다. 그런데 특정 필자나 글에서는 이러한 랑그적 쓰임과 아울러 좀 더 특징적인 파롤적 쓰임도 찾아볼 수 있다.

필자는 시인 김수영의 산문에 나타나는 언어 특징을 문체의 관점에서 살펴오면서 담화·화용 면도 주목하게 되었는데 1인칭 대명사를 비롯한 필자 지칭어의 쓰임은 그 주요 대상 중의 하나이다. 이에 김수영 산문에서 필자 지칭어의 표현 양상을 살펴으로써 그 일반적·랑그적 쓰임을 개괄 점검하고 특히 그 특징적·과물적 쓰임을 찾아보고자 했다. 그래서 그 표현 양상이 주관적 어조, 맥락 관련성, 공동 지향성 같은 문체 특징에 부응하고 있는 것, 그러면서도 이러한 특징적 쓰임이 두터운 일반적 쓰임과 맞물려 특화, 조정되는 것, 특히 글의 종류나 맥락에 따라 주관성과 객관성, 지칭어 실현과 선택 등을 조절하는 것 등을 볼 수 있었다. 다만 특징적 쓰임과 일반적 쓰임의 구별이 모호하고 글 유형이나 맥락 요인, 지칭어 선택의 요인 들 또한 좀 더 일관되고 명확하게 정리하기 어려운 점은 과제로 남는다.

김수영 산문을 대상으로 필자 지칭어 표현의 일반적 쓰임을 개괄 점검하고 그의 언어·문체 특징 중 담화·화용 면의 단면을 세부적으로 살펴본 데서 의의를 찾는다. 아래에 주요 논점을 간략히 정리해 둔다.

1. 자료 분석의 유의점과 방법으로 다음 네 가지를 중시, 고려했다. 즉 필자 지칭어의 실현 여부와 지칭어 유형 선택에 중점을 두되 지칭어가 노출되지 않는 경우도 문체적 관점에서 고려할 수 있다. 지칭어의 실현이 선택적인 경우가 필수적인 경우보다 표현·문체 기능이 두드러진 경향이 있으므로 전자에 중점을 두고 후자는 부차적으로 고려한다. 지칭어가 노출·실현되지 않거나 필수적인 경우도 실현되거나 선택적인 경우와 대비해 문체적 관련형으로 고려한다. 일반적 쓰임을 점검하면서도 김수영 산문의 특징을 의식해 특징적·有標的 쓰임에 더 유의한다.

2. 그는 개인적 수필 중심으로 ‘나’의 노출·실현을 선호하는 편이나 일반적 쓰임에서 그리 벗어나지 않으며, 글의 성격과 맥락에 따라 ‘나’의 쓰임이 절제되기도 한다. ‘나’의 쓰임이 두드러진 경우로는, 생략될 수 있는 ‘나’가 실현되어 주체를 소극적으로 강조하는 예, 시인으로서의 자의식이 ‘나’에 반복 투사되어 일반적 정보 흐름에 따르기보다 의미 맥락상 초점으로 쓰이는 예들이 나타난다. 이들은 그의 자기 표출, 자기고백적 성향을 드러낸다. ‘나’의 쓰임이 억제되는 경우를 보면, 글이나 단락의 첫머리와 전환부, 그리고 이어지는 맥락에서 정보 흐름상 어색한데도 ‘나’가 생략되어 서술자의 내적 분위기와 사색의

흐름이 강화된다.

3. 그는 개인성이 강하면서도 가족과 공동 현실에 대한 의식과 지향성 또한 강하다. ‘우리’의 쓰임은 그의 인간·사회적 속성의 복합성 및 다층성과 ‘나’와 ‘우리’의 관계를 반영한다. 그가 부류의 일원인 경우는 私的 부류, 일반 부류(세대, 사회·문화 공동체, 서민, 민족, 보편적 인간 등), 문학 관련 부류(문학 공동체, 시단, 문학인 등)로 나타난다. ‘나’와 ‘우리’의 관계는 개인이 공동체에 동질적으로 확대, 통합되는 경우와 서로 어긋나는 경우의 양면성을 보인다. 필자 자신의 일에 ‘우리’를 쓰는 예는 드물지만 자신의 관점을 일반화할 때에 나타나고, ‘우리’가 대비되는 부류(‘그들’)와 함께 쓰여 부류의 특성과 연대감이 강화되기도 한다.

4. 그도 ‘필자’는 논설류를 중심으로 자신을 격식있게 객관화하는 경우에 쓴다. 특히 자료 중심의 논지 전개, 公的 전언 표명, 감정 억제가 필요한 논쟁 등에서 쓰임이 두드러진다. 객관성과 공식성 유지, 감정의 절제와 완화에 쓰여 ‘나’가 주관성의 중시, 표출에 쓰이는 것과 대비된다.

〈참고문헌〉

- 김명인(2002), 『김수영, 근대를 향한 모험』, 소명출판.
- 김명인·임홍배 엮음(2005), 『살아있는 김수영』, 창비.
- 김수명 편(1981), 『김수영 전집 1 시, 2 산문』, 민음사.
- 김승희 편(2000), 『김수영 다시 읽기』, 프레스 21.
- 김정남(2003), 「한국어 대명사 ‘우리’의 의미와 용법」, 『한국어의미학』 13, 한국어 의미학회, 257-274면.
- 줄 고(1984), 「시의 언어 분석 시론」, 『어학』11, 전북대 어학연구소, 67-82면.
- _____(1996), 「신동엽 시의 담화론적 해석」, 김완진 외, 『문학과 언어의 만남』, 신구문화사, 855-880면.
- _____(2004), 「문학 텍스트와 문체론」, 『한국어학』25, 한국어학회, 1-21면.
- _____(2005), 「담화-텍스트 분석과 문학작품 담론」, 『성심어문논집』27, 성심어문학회, 49-75면.
- _____(2006), 「김수영 산문의 문체」, 『이병근선생퇴임기념 국어학논총』, 태학사, 707-733면.
- _____(2007), 「김수영 산문의 어휘, 표현, 수사」, 남성우 외, 『국어사 연구와 자료』, 태학사, 179-210면.
- _____(2008), 「신동엽 시의 화용 양상」, 『어문학논총』27, 국민대 어문학연구소, 45-67면.
- 양명희(1996), 「현대국어 대용어에 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이승규(2008), 『김수영과 신동엽』, 소명출판.
- 이한규(2007), 「한국어 대명사 ‘우리」, 『담화와 인지』14권3호, 담화·인지 언어학회, 155-178면.
- 주경희(1992), 「국어 대명사의 담화분석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황동규 편(1983), 『김수영의 문학』, 민음사.

〈Abstract〉

1st Person Pronoun and the Terms for Referring to the Writer Himself in Kim Soo-yeong's Prose

Kim, Heung-soo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terms of referring to the writer himself(1st person singular pronoun 'na', plural pronoun 'wuri' and the common noun 'pilja'(筆者)) in Kim Soo-yeong's prose, and investigated the general or unique use of the terms and their discourse/stylistic functions, and then discussed how they reflect his cognition and attitude toward himself and his writing.

In an analysis of the texts, I gave much consideration to several points such as actual use or ellipsis of the terms, selection of the terms, obligatory or optional use, and unmarked or marked use.

I dealt with three main topics here. First, the uses of 'na' shows not only general use according to information flow, but also unique use such as reinforcement and contextual focalization when 'na' is unusually used, and internalization when 'na' is restrained. Second, the uses of 'wuri' reflect the complexity of Kim's individual and social character, and the relation between an individual and his communities, such as confirmity or discord. Third, the uses of 'pilja' show self-objectification, formal attitude and control of emotion, in contrast with the uses of 'na' which expresses subjectivity.」

Keywords : 'na', 'wuri', 'pilja'(筆者), general use, unique use, discourse/stylistic function

이 논문은 2010년 7월 31일에 투고되었으며, 2010년 8월 12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0년 8월 1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